



## 사업 개요

가이드북 발간을 위해 600 장 이상의 사진을 수집하고 본문 레이아웃을 디자인하였다. 본문은 무형문화유산의 다섯 가지 영역을 다룬 5 개의 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수정하고 편집하여 영어로 번역하였다.

### 저자, 번역가, 편집자 명단

장	저자	편집	번역	번역 감수 및 번역		
서문	우르트나산 (Urtanasan, N.), 박사, 몽골문화예술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우르트나산 (Urtanasan, N.) 박사, 몽골문화예술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노민다리(Nomindari, Sh) 석사, 유네스코 몽골 자연문화유산 보호재단 사업 담당자	돌즈고토브(Dorjgotov, N), 몽골 국립대학교 명예교수		
1	언어 및 구전 전통과 표현	두람(Dulam, S), 박사, 몽골 국립대학교 교수	모롬잡츠(Molomjamts, L), 석사,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 행정과장	돌즈고토브	돌즈고토브	피터 마샬(Peter Marsh), 캘리포니아대학교 음악과 Graduate Coordinator
2	몽골 공연예술 및 놀이	윤덴바트(Yundenbat, S), 문화유산센터 무형문화유산과장 우르트나산 삼단(Samdan, Ts), 세계유산 연구, 훈련, 홍보 센터 소장 투멘-울지(Tu	잔찬노로브(Jantsannorov, N), 이학박사, 몽골 예술위원회 위원장	노민다리	돌즈고토브	피터 마샬

		men-Ulzii.Z), 국제지능박물관 관 관장				
3	몽골 전통 공예	밧출룬(Batchuluun. L), 교수, 박사 마잔 샤라브(Marzan sharyv), 예술아카데미 소장	아마르바야스갈란(Amarbayasgalan. D), 예술학 박사	노민다리	돌즈고토브	피터 마샬
4	전통지식과 관습	곤고르자브(Gongorjav. G), 박사, 국가명예 문화인물	볼드사이칸(Bolbsaikhan. B), 의학박사, 국립의료원 의사	바트자르갈(Batjargal. Kh), 번역가 돌즈고토브	돌즈고토브	피터 마샬
5	사회적 관습, 의례 및 축제	삼필덴데브(Sampildendeev. Kh), 우르트나산 돌즈다그바(Dorjdagva. T), 박사, 몽골국립대학교 교수	출룬(Chuluun. S), 박사, 몽골과학연구소 역사연구센터 소장	돌즈고토브 사인바야르(Sainbayar. U), 문화유산센터 무형문화과 직원	돌즈고토브	피터 마샬

몽골 '울란바토르 출판사'에서 총 550 권의 책이 발간되었다.



책자 발간에 맞춰 세계 무형문화유산 사진전과 함께 출판기념회가 개최되었다. 행사는 2010년 12월 8일, 국립교향악전당과 몽골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실시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여러 고위간부들이 참석하였다..

보르드(Mr. Bold, R) 몽골 대통령 자문관(대통령실 대표)  
친고리그(Mr. Chinzorig) 몽골 총리 자문관(몽골 정부 대표)  
반즈라크(Mr. Banzragch) 몽골 의회 대변인 자문관  
오토곤바야르(Mr. Otgonbayar, Yo)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장관  
르카그바수렌(Mr. Lkhagvasuren, B) 몽골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나란준(Mr. Naranzun, B)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예술문화정책국장  
엔크바트(Mr. Enkhbat, G) 문화유산센터 소장  
달라이자르갈(Mr. Dalaijargal, D) 유네스코몽골위원회 사무총장

이들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협동학교 프로젝트(ASPNet) 참여학교, 무형문화유산 NGO 및 협회, 연구소, 박물관 관계자,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및 연구자, 언론 매체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행사에 참석하였다.

고위간부들과 명사들이 공식석상에서 가이드북 발간을 축하하며 이 책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가이드북은 초청된 참석자들과 학교들에 배포되었다.

2010년 12월 9일에 사업평가회의가 열렸고 한국과 몽골 양 국가에서 사업 관련 임원들과 개인들이 참여하였다. 이 세미나는 아이디어와 의견을 공유하고 사업 관련 현안들, 앞으로의 도전과 진행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으며, 양측은 이를 통해 앞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였다. 몽골 측은 지역회의를 조직해야 할 중요성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협약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NGO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어 한국 측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심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특히 보존된 자료 및 도구의 복원과 디지털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 아태무형유산센터 담당자들은 국가들 간의 정보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첨단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반 활동에서의 그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12월 10일에, 박물관 및 몽골과 울란바토르 구역 21개 지방(aimags)의 교육문화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형문화유산의 목록 작성에 관한 심포지엄이 몽골 문화유산센터에 의해 조직되었다. 우리는 ‘몽골의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책을 배부하였고 참조를 위해 그들의 소속과 성명을 등록하게 하였다.